

# 다채로운 시적 음조의 울림

정끝별, 김수영, 안찬수의 첫 시집을 보고

황병하  
문학평론가

최근에 세 사람의 30대 초반 시인들이 자신의 첫시집을 발간했다. 그들의 이름은 정끝별, 김수영, 안찬수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첫시집을 상재한 출판사들이 각기 다른 문학적 색깔을 가지고 있듯, 그들의 시세계 또한 사뭇 다른 이정표를 쫓고 있다.

## 자연에 대한 언어의 서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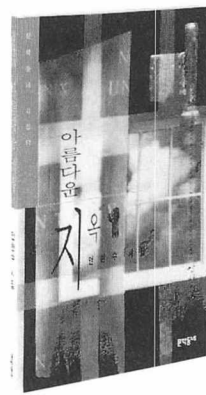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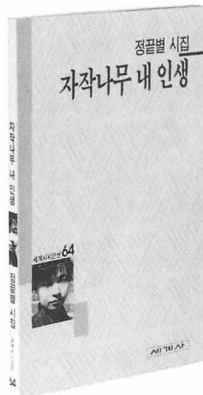
이들 중 가장 먼저 문단에 선을 보였던 시인은 정끝별이다. 1988년에 등단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나서야 첫시집을 냈다는 점은 그가 시작(詩作)의 양적 성과나 영예에 대해 그다지 연연해 하지 않았음을 짐작하도록 해준다. 그의 시집 《자작나무 내 인생》을 들춰보면 우리는 그가 왜 이처럼 과작의 전력을 추구했는지 금세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이 시집에 나오는 거의 모든 시들은 정치하고 빼어난 언어의 운용 위에 기초해 있고, 바로 그러한 시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포도주가 오랜 숙성의 기간을 필요로 하듯 긴 시간의 영감 모으기 또는 써가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정끝별의 시는 근본적으로 자연과 삶에 대한 언어적 서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와 에밀리 디킨슨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채취했을 자연에 대한 서정적 영감의 유산은 정끝별에게서 단순한 답습이 아닌 한국적 자연으로 대체되거나 도회지의 삶으로까지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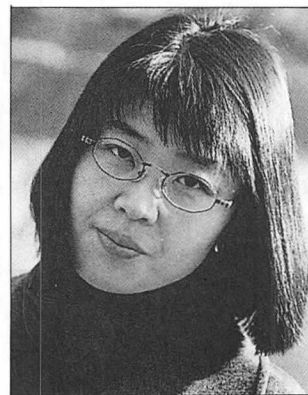
정끝별은 자신의 시들로 하여금 서정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해 회화성과 음악성이라는 고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두 장치에 주로 의존한다. 이미지들의 시각성을 살린다거나(회화성), 각 행들의 뛰어난 어미 처리 효과(음악성)가 바로 그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서로의 지층이 다른 이 향기와 음률이 한 시에 한꺼번에 융해되어 있다면 그것은 출중한 서정시의 한 예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물결한 날 물러는/거미모기가 꿈팡이야  
좁아 쥐벼룩야/그 기다란 집들의 행렬을  
희망이랄 수 있겠니?/내 집에 온 우주가  
꼬물락 꼬물락/숨꽃들이 발산하는 황홀한  
향기/아가야, 너도/방 한 칸 들이지 않으  
렴/따뜻한 내 집에/살아있는 것들은 집을

최근 세 사람의  
30대 초반 시인들이  
첫시집을 출간했다.  
정끝별, 김수영, 안찬수의  
첫시집은 각기 다른  
그들의 시세계를 보여준다.  
새로운 목소리를 지닌  
이들의 다채로운  
시적 색깔과 리듬을 통해  
새롭게 뿌리내릴 한국시의  
미래를 부분적으로나마  
전망해 볼 수 있다.



왼쪽부터 정끝별,  
김수영, 안찬수씨.



짓는다).

그러나 정끝별의 시들은 바로 이처럼 전통적인 시세계에 지나치게 천착해 있음으로 써 극적인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들도록 만든다.

## 다양한 시적 세계의 혼재

아마 정끝별이나 안찬수에 비해 삶의 연혁이 짧은 탓일까(30세), 아니면 리얼리즘 시 전체가 총체적으로 균열하고 있기 때문일까, 김수영의 시에는 여러가지 다른 시적 세계들이 무분별하게 혼재되어 있다.

그가 상재한 시집 《로빈슨 크루소를 생각하며, 술을》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내적 성찰, 자연의 서정화, 여행의 서정, 자연과 사회상에 대한 리얼리즘적 글쓰기,センチ멘탈리즘 등 다양한 주제들이 뒤섞여 있다. 그녀의 등단시인 〈남행시초〉가 비록 엄격한 의미의 리얼리즘시가 아니기는 하지만, 초기시들로 짐작되는 4부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시들은 그녀의 시작이 대략 리얼리즘적 시각에 의거해 출발했음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통일적 시세계의 부재는 일견 부정적으로, 다른 일견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만일 이 다양성의 시세계가 긍정

적이 되려면 다음 두가지 중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그러한 여러 다른 양상들이 발전적 형태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어지러운 혼돈 속에서도 새로운 목소리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김수영의 시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번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집 2부에 실려 있는 몇 편의 시들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듣지 못했던 매우 낮설지만 충격적이기까지 한 시적 음성들이 등장한다. 〈여량〉연작들 중 첫 세 편이 바로 그것들이다. 일종의 여행시에 해당하는 이 세편의 시들은 전혀 감정이 탈색된 한 보는 자의 눈을 통해 자연과 사물과 세상과 사회를,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오온(색수상행식색受想行識)의 구분없이 즉물화시키고 있어 처절하리만치 담백한 서정을 추출해내고 있다.

“...담배 한 개피 피울 동안만 다리 한가운데 앉아 주먹만한 별들이 흐르다 빠지는 강물에 닳을 놓을 거야. 터덜터덜 걷다 집밖에 매어놓은 수염이 석자인 털복숭이 솟염소와 눈이 마주치지 않게 조분한 밤길은 조심스럽게 비켜서 걷고... 기차를 기다릴 동안 수첩에다 '95년 10월 29일 나는 여량

에 있었다'라고 적어놓자”(〈여량 가자〉).

비록 〈여량〉연작의 네번째 시인 〈여량을 떠나며〉에서는 그 밀도가 떨어지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시들의 독자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황량한 마음으로 기다려진다.

## 지식인의 치열한 고뇌

안찬수의 시집 《아름다운 지옥》을 읽으면 80년대에 지식인이 당면했던 고뇌를 지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난삽하면서도 치열한 싸움의 현장을 보게 됨으로써 금세 박남철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시집의 2부에서 그러한 느낌은 더욱 두드러진다. 안찬수는 박남철과 마찬가지로 지식인의 갈등을 문자적 교란을 통해 형상화시키거나, 균형의 미학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시 양식과 서정들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그 미적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정형을 넘어서고, 시적 계율을 넘어서고자 하는 이러한 자학의 시학은 어쩌면 80년대를 거처온 한국의 지식인들이 다다를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착지점이었던 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남철의 시를 읽어보지 않았을 리가 만무한 안찬수는 결코 완벽하게 박남철시의 아류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다. 우선

# 동물 이해를 통한 공생정신의 회복

《코끼리가 울고 있을 때》를 읽고

최성각 · 소설가 · 중앙대 강사

안찬수의 시는 박남철의 파괴성에 비해 그 강도가 낮다.

물론 습작품으로 사료되는 3, 4부의 어떤 시들은 거칠고 심지어 낡아빠지기조차 하다. 하지만 안찬수의 시가 가진 형식실험이 박남철에 비해 온건하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전례인 박남철과 달리 보이고자 하는 순진한 마음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안찬수가 아직까지도 이어져오는 80년대의 지적 갈등에 대해 박남철과는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연원한다.

박남철은 그러한 아픈 고통과 마주쳐 그 지옥의 가장 깊은 바다까지 짓쳐들어갔다. 반면에 그 고통 앞에서 안찬수가 발견한 화두는 무상이었다. 그것의 결과물로 나온 계단연고 조각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집 1부에 나오는 여러 시편들이다.

《아름다운 지옥》 1부에 나오는 시들은 어찌 보면 시(詩) 공부가 전혀 결여된 한 습작도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갖도록 만든다. 균형을 무시한 열거와 나열의 연속, 유행가조 경탄법의 난무, 직설적이고 비속한 어투, 언어의 핵을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수사법들의 태부족 등은 심지어 헛웃음조차 나오게 만든다.

그러나 바로 이 비정형이 안찬수의 시에서는 어느 순간 돌연한 돌파구를 찾으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 못했던 허무하고 찡하고 유치하고, 그래서 역으로 보다 지적이기도 한 새로운 시세계의 지층을 만들어낸다. 마치 무상이 고통을 함께 끌어안은 채 이루는 승화의 극복이듯, 유치하고 유행가적이고 일상적인 시상(詩想)들이 역시 유치하고 유행가적이고 일상적인 어법들을 통해 연쇄, 반복, 점층되면서 <홍겹고 슬픈 삶의 노래>라는 아주 새로운 시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각기 다른 시적 색깔과 음조를 가진 이들 30대 초반 세 시인들의 첫시집을 통해 앞으로 새롭게 뿌리내릴 한국시의 미래를 부분적으로나마 조망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

《로빈슨 크루소를 생각하며 술을》(김수영)  
창작과비평/B6변형/106면/3500원  
《자작나무 내 인생》(정끝별)  
세계사/B6변형/120면/4000원  
《아름다운 지옥》(안찬수)  
문학동네/B6변형/144면/3500원

고승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닌 까닭은 밋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땅바닥의 미물들에게 피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지였다. 이 때 지팡이는 사물이라기보다는 미물들에 대한 한 태도를 드러내는 상징이다. 어떤 태도였을까. 공생의 사상에 다름아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강도 높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책은, 심상 속에 지팡이를 든 고승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그리 낯설지만은 않다.

‘동물도 울고 있다’로 시작된 책은 마침내 ‘종 사이의 장벽을 넘어(동물의) 감정영역에 참여하여 가까워지자’로 끝나고 있다. 문제는 설득력인데, 평소에도 동물의 감정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독자들도 저항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힘이 이 책은 간직하고 있다.

그 힘은 동물도 사랑, 열정, 연민, 질투, 수치감, 희망, 분노, 통증, 이타심, 실망감, 향수 등의 고등감정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하고도 적극적인 정서생활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연구의 풍성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진화생물학계, 혹은 동물의 의인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동물행동학자들의 광범위한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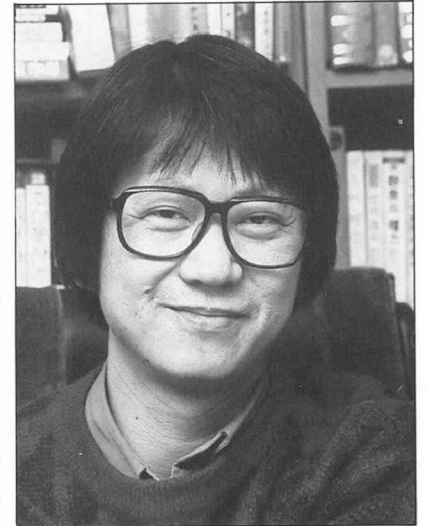
어미 코끼리들이 학살당하던 충격으로 말

미암아 밤새도록 악몽을 꾸는 케냐의 새끼 코끼리들의 비명, 지는 해를 낚을 놓고 바라보는 로맨틱한 꿈, 얼음 위에서 미끄럼을 타는 익살스러운 들소, 표기를 방해하는 새에게 물을 뿜음으로써 관중들의 시선을 되돌리려는 돌고래, 권태를 느끼는 앵무새, 강간하는 조류들, 사랑하는 짝을 잃고 상심으로 죽음에 이르는 비비 등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미담지를 밟는 것 같은 경탄이 절로 나온다. 그런 경탄들은 점차 두터워져서 책을 덮고 나왔을 때에는 마침내 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힌 사람이 지니게 될 인문적 포만감에 이르게 한다.

정신분석가였으나 지금은 열렬한 동물보호 운동가인 저자들은 동물에게 감정이 있다는 주장에 신경질적인 반감을 표하는 대다수 과학자들의 인간중심주의를 조소한다. 과학을 방자한 비과학적인 편견의 조장이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 등 인간정신의 극점까지 이른 사람들이 품고 있던 동물관이 얼마나 유아론적이고 빈약한 인간중심주의에 머물고 있었는가를 꼬집는 필자의 어조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다.

데카르트의 동물이해는 동물이 자동기계와 같이 ‘생각 없는 짐승’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스피노자는 동물도살을 미신과 아낙네의 동정심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사냥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힘이 곧 정의라는 이러한 논리가 강간의 합리화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이 책은 서늘한 어조로 묻고 있다.

동물에게도 깊은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는 무엇일까. 새삼스럽게 극단적인 동물애호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바캉스를 갈 때에는 버리면서도 사람보다 동물에 대한 사랑이 더 깊은 듯한 감정을 수용하는 문화에 대한 동경심을 지금보다 심화시켜야 옳을 것인가. 혹은 우리 모두 채식주의의 선언을 해야 옳을까.

동물행동학이 무성했던 적은 없었지만 오래 전부터 우리는 뜨거운 물도 식혀서 마당에 뿌렸다.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한 아름다운 극단을 우리는 현실생활에서 실천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흥미롭고 풍성한 사례로 가득차 있지만 이 책이 겨냥하고 있는 사상은 그리 새삼스럽지만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잃어 버리려고 한 정신, 즉 공생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다양한 생물 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공생정신의 회복과 실천이 곧 우리가 그동안 정신없이 쌓아올린 반자연적·반생태학적 문명의 방향을 유턴시키는 일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

제프리 무세이프 메이슨, 수전 메카시 지음/오성환 옮김  
가치/A5신/383면/9000원

